

전시에 관한 작가의 글

2019년부터 카프카(F. Kafka)의 문학작품 『소송』과 들뢰즈와 가타리의 『카프카-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의 철학적 해석을 기초로 하여 영화, 영상, 설치 등 복합적인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기획 중의 하나인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형식들의 구성을 통해 <소송>과 <법 앞에서>의 상호관계를 조합, 그리고 증폭시키고자 한다.

첫 전시 《소송·과정 | Der Prozess-Der Prozess》에서는 소설 속에 나타난 카프카의 특별한 공간 지형도를 응용하여 통의동 보안여관 공간의 각방, 복도, 천정에 연출된 하숙집, 은행사 무실, 재판소, 변호사의 집, 화가의 작업실을 유기적으로 위치시키고, 이들을 연결하고 혼합하는 배치를 중심으로 영화설치 작품을 만들었다. 2020년에는 설치를 위해 촬영한 6채널 영화와 전시 기간 동안 갤러리에서 촬영한 다른 영화 컷을 함께 편집하여 영화 '소송'을 완성했다.

2021년 온수 공간에서 발표하는 《법 앞에서/Vor dem Gesetz》는 『소송』 안에 있는 카프카 단편 『법 앞에서』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하고 <소송> 영화와 이 영상을 병행하여 설치한다. 『소송』은 카프카의 장편소설과 『법 앞에서』라는 단편소설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들이 서로 대조되면서도 거울처럼 반사하는 내용임에, 서로 다른 형식을 통해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배치한 것이다.

다른 공간에서는 몇 토론자들이 『법 앞에서/Vor dem Gesetz』와 들뢰즈와 가타리가 쓴 『카프카』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만드는 영상이 설치된다. 관람자들은 이러한 대화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남길 수 있는데 이 글들은 전시 공간에 같이 전시된다. 이렇게 이 문학작품은 영화, 영화설치에서 다시 언어와 텍스트로, 동시에 계속 열려 있는 형태로 돌아온다.

다른 한 편으로 관람자들은 전시장 문에 설치된 LED 글자 '법'을 통해 결국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관람자들의 욕망이 이 <소송>을 지속하게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전시 작품들

1. <소송> 95분, 흑백영화, 2020

영화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따르긴 하지만 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송은 주인공 카가 체포되어 죽는 것으로 이야기 종지부가 있는 것 같지만 앞뒤 전개가 비논리적이다. 오히려 세부적인 부분, 화가 티토렐리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은 모순이 많지만, 무척 논리적으로 들린다.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텍스트가 강조되면서 오히려 영화적 흐름은 단절되고 방향성을 잃게 된다. 미술적 장치를 이용한 연출은 영화적 방식과 또 충돌하는데 일반 영화에서 촬영방식이 보이는 균일한 공간을 위한 연속성, 관객이 영화 속 인물과 동화할 수 있는 시점, 전체적인 공간에서 움직임의 파

악할 수 있는 동선들이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영화의 환상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한다. 이는 영화가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공기, 법과 일상 공간의 인접성, 카 주변의 사람들의 움직이는 욕망의 톱니바퀴 기계, 카의 연속적인 우회 등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2. <법 앞에서> 애니메이션, 8분 53초, 2021

카프카의 단편 『법 앞에서』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전체 연출 세트는 조각적으로 표현된 미니어처 오브제들로 구성되었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연기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법의 문을 배경으로 한 무대와 진흙으로 만든 두 인물의 플레이를 클로즈업 촬영을 통해 작품의 임팩트를 극대화했다.

3. <법 앞에서 토론> 영상, 78분 25초, 2019, 2021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소송/ 법 앞에서』와 들뢰즈와 가타리가 쓴 『카프카』를 읽고 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들은 작가들이거나 미술관계자이며 문학가나 철학자들은 아니다. 이 토론자들은 준비한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게 되는데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가 또한 발전해 간다. 이러한 과정은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래를 치며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며 계속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초대하게 한다.

4. 전시장에서 관람자들의 글쓰기 참여

관람자들은 준비된 소송 텍스트와 영화, 영상을 보고 또 토론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제시할 수 있다. 관람자들이 남긴 글들은 전시장 벽에 준비된 프레임에 계속해서 붙여지고 그다음 관람자들이 같이 보게 되면서 생각의 증폭이 일어난다.